‘목·두통 호소’ 금호타이어 화재 주민 피해 속출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이날 불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무를 정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시스

‘발진·근육통’ 주민 인명 피해 접수 5793건
타이어 타면 이산화황탄소 등 유독물질 배출
중금속 ‘납’ 평균 3배 달하는 18ng/㎥ 치솟아
“공장,연소 화학물질량 밝히고 역학조사 시행”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5000건을 넘어섰다.

화재 직후 대기 중 미세먼지와 중금속 농도도 짙어지고, 타이어 연소에 따른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주민 2차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난 19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인명 피해 5793건이 접수됐다.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은 피부 발진과 목 따가움, 두통·근육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가 속의 이산화황이 타면 이산화황탄소·벤젠·톨루엔·일산화탄소·시안화수소 등 유독물질이 배출된다.

실제 대기 중 미세먼지와 중금속 농도도 짙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코리아에 공개된 광주 대기환경측정 결과 유해 중금속으로 분류된 ‘납’ 성분은 화재 전날인 16일 0ng/㎥을 기록했다가 화재가 발생한 17일 18ng/㎥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이튿날 오전 납 검출량은 9~14ng/㎥, 주불이 잡힌 뒤인 22·23일에도 8~9ng/㎥까지 올랐다.

호남권 1년 대기중 납 검출 평균값이 6ng/㎥인 점을 고려하면 화재 직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발암 1군 물질인 니켈의 호남권 1년 평균치는 1ng/㎥인데, 화재 이튿날인 17일부터 2~4ng/㎥을 기록했다.

19일 오후에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인 76ng/㎥을 초과한 124ng/㎥에 달했다. 같은 시간 미세먼지도 ‘매우나쁨’ 수준 151ng/㎥을 상회하는 180ng/㎥을 기록했다.

광주시와 영산강환경청은 대기중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화재 연구에서는 타이어 연소에 따른 인체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창우 충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지난 2023년 3월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서 호흡기·폐·신경계·피부질환 발생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스페인에서는 2016년 매립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이어 7만~9만톤t이 연소했다. 스페인 타라고라공립대 의대팀은 화재 이후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지역주민들이 흡입해 발암 확률이 일반 지역보다 3~5배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국제환경’에 발표했다.

스페인 매립지 화재의 경우 타이어가 9만t이 탄 반면 금호타이어 공장의 경우 두 배에 달하는 생고무 20t이 탄 것으로 추정돼 주민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주민 피해를 고려해 타이어 연소 당시 사용한 화학재료를 정확히 파악해 인과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화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타이어 재료인 황과 분진의 원인이 되는 카본블랙이 결합되면 인체에 유해한 분진 형태로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장에서 당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소실이 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5000명이 넘는 주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조사해 급성·만성기 장기 치료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공장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물고기 폐사와 같은 수질 오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타이어는 주민 피해가 우려되면서 조기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오권철 기자

전남도, 여름철 농업재해 상황실 65곳 운영
시·군, 농협, 농어촌공사에 설치, 1만2000곳 사전 정비

전남도가 폭염과 태풍,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상황실 60여 곳을 운영하고, 재해 취약지역 1만2000여 곳을 사전 정비한다.

올 여름은 대기가 불안정해 많은 비가 내리고, 이상고온에 따른 폭염일수 증가와 함께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도는 이에 10월15일까지 5개월 간 일선 시·군과 농협, 농어촌공사 등 65곳에 농업재해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일선 시·군, 농협, 농어촌공사 등 65개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연락망 구축과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시 24시간 근무,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들녘별·품목별 생산자 149명과 농업재해 대응 현장 모니터링반 소통채널을 구축해 기상상황 전파와 현장재해 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4월 한 달 동안 재해 취약시설 1729곳, 농업생산 기반시설 1만645곳과 개보수 현장 410곳을 사전점검하고, 발견된 72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유덕규 식량원예과장은 “여름은 장마와 태풍 등 많은 자연 재해가 발생하는 시기”라며 “기상 특보에 관심을 두고 배수로 정비, 시설물 고정 재해 예방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에선 지난해 극한 호우와 이상고온 등 총 14건의 재해가 발생해 농작물 3만 5568ha, 농업시설 22ha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민규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사고기종 B737-800 퇴역,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합의 종용 사측 규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사측을 향해 합의를 종용하지 말고 진상조사에 우선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일동은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은 ‘유가족 지원과 항공기 안전 관리를 약속하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은 최근 5년 동안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이 9회에 달해 국내 항공사 10곳 중 가장 많다. 운항 정지 처분도 가장 많다”며 “하지만 정비 인력은 항공기 1대당 7.5명에 불과하다. 특가 세일이 아닌 항공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는 예견됐다. 열흘 전 조류 충돌 우려를 논의하자는 위원회 회의가 무안공항에서 있었지만 회의 참석 대상인 제주항공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공항공사와 관제탑은 거대한 운집을 이룬 새 떼를 적시에 쫓지도, 발견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조종사는 조류 충돌 당시 착륙 중에는 새 떼를 뚫고 착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엔진 가속으로 상승했다. 조류 충돌 대비 훈련을 제때 실시했는지도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밖에도 “제주항공은 우리 유가족에게 최종합의를 하자며 등기를 보내왔지만 훗날 이유를 묻자 ‘실수’라고 답했다”며 “아무 이유 없이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은 사고 비행기의 부품 교체 인증서, 정비 이력, 조류 충돌 대비 훈련 내역을 샅샅이 공개해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또한 무안과 김포공항에 방치한 사고기 증거 보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5·18 행방불명자 찾기’… 광주시 유전자 분석사업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기 위해 ‘유전자 분석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혈액·구강상피세포 등 유전정보를 채취한 뒤 발굴된 무연고 유해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행불자 찾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5·18조사위원회가 계엄군 등의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한 19기의 무연고 유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확보한 290기 이상의 유해 DNA 정보 602건을 토대로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비교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석은 염기서열(STR)) 방식과 정밀도가 높은 단일염기다형성(SNP) 기법을 병행 적용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가족도 유전자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불자 유전자 분석사업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하며 시청 또는 유전자 검사기관을 방문해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6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추가로 3명의 신원을 밝혀냈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5·18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